

GRACE 선교소식

2026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60개국 31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추계부흥성회와 월요일 5차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부천에 위치한 세상의 빛 동광교회(담임 류재상 목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 은혜는 예배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지난주 4차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면서 목요일부터 추계부흥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강단에서 울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에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일천번제 기도가 종료되는 날로, 새벽 감사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예배드리고 토요일 새벽에도 헌신하여 드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내주셨고, 이 기간 동안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가 큼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5차 일천번제 기도가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천 번의 기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천 일 동안 매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천 일 동안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천 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오늘의 한 번의 기도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천 번의 기도가 쌓이면 우리 인생과 가정과 다음 세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세상의 빛 동광교회 50주년 기념 부흥집회: 10/22-10/25
- 은혜동산 #18: 10/26-10/29
- 전주 바울교회 부흥성회: 11/2-11/4
- GMI은혜교회 추수감사 특별부흥회: 11/6-11/8
- 한미 목회자 포럼: 11/10-11/12
- 추수감사 특별새벽부흥회: 11/16-11/2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5차 일천번제 기도를 작정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 기도를 하시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I국

김OO 선교사

최근 주님께서 이곳에서 생활하며 일하는(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I국 기독교 형제들과 교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공동으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노동 시간과 재정적 압박,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께 신실한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는 무슬림 가정들에게 다가갈 문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기꺼이 가정으로 초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그리고 제가 각 관계 속에서 지혜와 세심함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 예상치 못한 주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거 마련을 위해 맡겨둔 돈을 부동산 중개인이 가로채는 일이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집 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저



는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환경이나 재정,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언 3:5).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저는 선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T국

이예레미야 / 권은혜 선교사

T국 I국 GMI EM 사역자 전도훈련

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T국과 I국의 GMI EM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BST 1.0 전도배가 전략훈련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른 단체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왜, 어떻게,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바울의 선교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회교권 사역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ANY3 전도법'을 소개하고, 3일 간 길거리와 공원으로 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현장의 여러 위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결과,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국인과 히브리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GMI 사역에 다음 단계인 BST 2.0(제자배가 전략훈련), BST 3.0(교회&리더배가 전략훈련), BST 4.0(선교사배가 전략훈련)이 잘 소개되고 잘 적용되어 GMI 사역의 현장마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	만난 사람	복음을 끝까지 들은 사람	영접한 사람
튀르키예 이스탄불	190명	71명 (37%)	9명 (4.7%)
이스라엘	24명	13명 (54%)	3명 (12.5%) 히브리인 2명

몽골에서의 전도 및 TD 사역

T국에서 전도훈련을 인도한 뒤 바로 몽골로 건너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몽골 사역은 '다시 몽골로 가라'는 주님의 감동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여름시즌 몇 개월 동안은 몽골에서 지내며 몽골교회가 더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몽골교회를 깨우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에는 부산세계교회청년부, 대구신일교회 단기팀을 인도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결과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영적 재생산을 이뤄가는 것은 또다른 큰 숙제이자 기도제목입니다.

몽골 TD 2기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T국 선교사로 간 몽골인 제자 2명의 어머니들이 캔디데이트로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자녀인 몽골인 선교사들과 세계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중 마리아 선생의 어머니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선생의 T국에서 9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자 때문에 다시 이스탄불 대학교에 입학하여 7년만에 감격스러운 졸업을 하고, 5년 만에 그리운 몽골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희를 찾아와서 '내 딸이 T국에서 선교사로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놓아 달라, 이제 몽골에서 나랑 살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저희는 정신병원에서 마리아 선생을 퇴원시킬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어머니는 몽골 TD 2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딸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리아 선생은 T국에 복귀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참 부모이신 주님께 자녀들을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드리기 앞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T국을 넘어 중동의 부흥을 꿈꾸며

현재 다시 T국으로 돌아와 T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큰 군대를 모을 계획입니다. 연합을 통하여 이스탄불에 새로운 센터교회를 세워 이 땅 부흥의 불을 지피고 큰 전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센터교회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잘 확보하도록, 필요한 군사들과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요.

올 연말에는 아들 상재 전도사의 도움으로 2~3명의 1년 청년 선교사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단기 청년 선교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레바논에 있는 난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BST 1.0 전도배가 전략훈련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아랍어 통역을 통해 훈련이 진행되는 데 저와 통역자, 그리고 훈련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훈련을 통해 그들이 더 이상 난민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인, 곧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P국

정OO / 정OO 선교사

지금 이곳의 정세는 여러가지로 안 좋아, 헌 정권을 내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총리를 다시 내세우려는 세력들의 폭동으로, 서 북쪽의 한 주에는 지금 비상계엄령이 내려 있어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연일 군과 경찰이 대치하며, 많은 인명피해와 무지비한 구금과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마다 열리는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멀리서 오는 사역자들의 오고가는 발길이 막힐 것 같아서 모든 사역자들이 밤새워 부르짖었더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컨퍼런스가 끝남과 동시에 계엄령이 내리고 길이 닫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11회 3박 4일의 미션 컨퍼런스에는 약 60여 명이 참석하였고 멀리서 꼬박 24시간동안 이동하여 온 사역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손님 두 분도 잠시 참석하

셨습니다. 모두 미전도 종족지역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중 상당수가 개종한 무슬림 사역자도 있고, 힌두에서 개종한 사역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부강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실제 우리 사역자들의 실제 사역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간의 기도,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미션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15년 이상 제자 사역으로 시작으로 시작했던 세미나를, 2020년부터 신학교체제로 발전시켜서, 올해 처음으로, B.Th 과정의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신학교가 더 발전되어 멀리 미 전도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역자들도 센터에 와서 호스텔하며 단기로 정기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체제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주일 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이제는 그 역량이 모든 학교와 교회에까지 퍼져,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일학교 외에도, 모든 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말씀읽기와 기도로 시작하고, 여름방학 때에는 학교 교사들이 필드에 나가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동들까지



찾아가 VBS를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를 합니다.

교회 학교 미션 모든 그룹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기회가 되는데로 필드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여행까지 다니며,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도와가며 벽돌을 찍고 밥을 하고, 막노동을 하며 학교를 다녔던 벽돌 공장 여자아이들이 드디어 정부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고, 많은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힘들어 했던 여학생 5명이 칼리지에 입학하였습니다.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한 해가 깊게 무르익어 가는 계절입니다. 케냐는 슈퍼 엘리노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상기후로 인해 며칠에 한번씩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지만 그러는 가운데 점점 더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킬리피는 올해 수돗물이 나온 날보다 나오지 않은 날이 훨씬 많은데, 수도국에서 엄청난 금액의 전기요금을 미납으로 케냐파워에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로 물탱크를 채우고 한번씩 10,000 리터 물탱크를 사서 채우지만 학교와 신학교, 가정집까지 물을 사용하기에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어느 마을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수도 파이프를 깨뜨리고, 물차가 마을마다 다니며 가정당 20 리터 물통 2개씩 물을 공급해주는 날에는 물통 행렬이 어디까지 이어집니다. 물과 전기를 마음껏 쓴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며 감사인 것을 매일 느낍니다.

1월부터 시작된 학교는 이제 마지막 달을 바쁘



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으며, 6학년과 9학년 중3)의 국가고사가 10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케냐의 모든 학교들은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등학교를 위한 과학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파이프를 각각 기술자가 따로 설치하는 일이 꽤 일이 많습니다. 벽과 바닥을 깨어 파이프를 묻고, 새로 미장을 하고 타일을 붙였습니다. 또한 9~10월 두 달 동안 9학년 학생들은 합숙을 하고 있는데 최근 건축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한 시간 공부를 하고 5시 반에 새벽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저희들도 모두 수

험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시험과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9월 1~2주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18기 28명, 19기 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수업 태도가 너무 좋다고 강의하는 분들마다 말씀하십니다. 매년 꼭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셔서 배우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준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학교 2주 세션을 마치고 바로 이어져 한 주 간 GMI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PBWM 목사님들 네 분과 함께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사랑제일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팔레 카운티에 Kitsoka Grace 교회가 건축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7월에는 100m 깊이의 우물도 팔 수 있는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 번째로 Majengo Grace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세계 선교 마무리에 다함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김 에스더 선교사

목숨을 건 탈출의 과정에서 얻은 깊은 상처와 질병,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탈북민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저희 은혜교회와 미스바통일 선교회가 오랜 기 끝에 뜻깊은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역 소개

<뇌 건강·마음 건강 노인 교실> 우리 성도의 99%, 그리고 월례 기도모임 참석자의 90%가 탈북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셨으나, 돌봄의 사각지대 속에서 만성질환과 암, 치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2년여의 뜨거운 기도 끝에, 드디어 올해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 <뇌 건강, 마음 건강, 노인 교실>을 고유번호증과 함께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실은 탈북민 어르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어르신들까지 품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개소식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 예상 인원: 50명~80명
- 목표: 탈북민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통로 역할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

-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는 사역으로의 도약**
10월 15일 첫 문을 여는 노인교실이 탈북민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선한 영

향력의 기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필요한 재정과 후원의 문

현재 자력으로 시작하여 향후 정부 지원 및 기업 후원 연계를 기대하고 있으나, 당장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역의 첫걸음이 물질의 부족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재정과 손길들이 적재적소에 예비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오픈 기념선물(생활용품, 건강용품 등)이 온전한 사랑의 후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 대한민국에 이룬 어르신들의 굳은 마음을 열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역자님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기도가 모여 이 땅의 탈북민 어르신들에게는 큰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온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지난 2년을 살펴보니, 날씨와 언어와 문화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 나라 국민성과 저의 부족한 언어, 이 두 가지가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 저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힘들어 한 적이 없음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벤자민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다시 현지인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늘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경험들이라 봅니다.

이발소 아저씨, 파흐로 Fahro

늘 가는 이발소가 있는데 이름은 파흐로입니다. 이발소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65세가 넘었지만 체격이 다부지고다정하며 이발을 정말 잘 합니다. 처음에는 가사한 마디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해서 이발만 하고 나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 보스니아어가 들리면서 짙막한 대화를 하

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질문은 “어디에서 왔냐” 였습니다. 그 대답도 가까스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이발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전에 터키에서 가져왔던 인스턴스 커피믹스를 맛보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런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란 눈으로 저를 깊게 바라보며 잠시 이발을 멈추며 저에게 이슬람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못 알아들으니 보스니아어가 더 좋아지면 그 때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자, “그러자”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제가 피아노를 칠 테니 한 번 들으러 오세요” 하니, “음악은 자신에게 알라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때 이슬람신자들도 아주 강한 이슬람신자부터 날라리 신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딘 Edin

일 년 전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건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자신은 “한국에 가 본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뒤에 연락은 없었지만 이따금씩 길에서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1시간 정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슬람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이슬람 신자라고 했습니다. 전형

적인 보통사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이며 자신의 자유를 좋아하고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계속 관계가 이어 진다면 좋겠네요! 먼저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언어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보스니아어 사용 비중이 늘고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이 제가 보스니아어를 다 이해하는 줄 알고 이야기하지만 이해 못해서 대화 도중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싶지만 분위기상 그런 말을 못합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आयुषी

몇몇 안되는 교회 식구들과 조출하게 야회에서 고기와 굴라쉬라는 수프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식구들 중 한 부부는 아내가 이슬람신자입니다.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쁘기도 했고 이슬람 신자가 섞인 모임의 분위기가 어떠한 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담배피는 두 성도와 이슬람 아내를 둔 한 성도! 구별된 삶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로키살레 지역 전도사역

9월에는 로키살레(Lokisale) 지역의 현지교회와 함께 전도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로키살레(Lokisale)는 크지 않은 마을이지만 집들이 넓게 흩어져 있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가' 보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한 현지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두세 시간을 걸어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일이 결코 가까운 걸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도팀은 계속해서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며,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학교 건축

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건축도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실 6



칸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과학실과 교무실, 행정실, 강당 등의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전기를 연결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 마려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는 만큼 한 단계씩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남은 건축 과정에도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적절한 때에 채워지고, 이 학교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루사 한글학교와 어린이 예배

최근에는 격주로 아루사에 있는 한글학교와 어린이 한국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라투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어린이는 현재 이음이 혼자이기에, 한국인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한국어로 배우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루사까지는 편도로 약 두 시간 반이 걸리지만, 여러모로 고려한 끝에 격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이음이의 모습을 보니 저희도 참 기뻐했습니다. 한국어로 드리는 어린이 예배에서도 힘껏 찬양하며 예배드렸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

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모로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들이 이곳에서는 이음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이음에게 좋은 심과 기쁨이 되고, 또래들과 함께 배우고 예배하며 믿음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우기를 앞두고

가정의 일상을 돌보는 가운데 요즘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우기입니다. 10월과 11월은 이곳의 소우기입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비 지침에 따라 원래 12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학교 방학도 11월 1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센터는 우기마다 주변의 물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센터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과거 큰비가 내렸을 때 집 안이 무릎 높이까지 잠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없었던 큰 물웅덩이가 센터 가까이 생겼습니다. 인근 도축장에서 나온 하수가 고이면서 모기 유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바람이 불면 냄새가 집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이 물까지 빗물과 함께 센터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필요한 배수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있지만, 올해는 예산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기를 맞게 되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우기에도 가정과 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배수시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진 / 조재숙 선교사

11월에 엄청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건축에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매년, 초등 3학년, 초등 7학년, 중2학년, 중4학년 국가시험을 실시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상급 학년이나 상급학교 진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험이 실시될 때에 별도의 적절한 시험 장소가 없으면 각 학년 시험 볼 때마다 전교생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시험을 치루어야 할 소강당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노트북을 10대 선물 받음

6월 5일 2024년 중 4학년 국가시험에서 1등급 받은 학생 10명에게 대통령께서 노트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멋진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시각 장애우 섬김 감사

6월 20일 시각 장애우 200명에게 5키로짜리 밀가루 200포 옥수수 가루 200포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더니 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더니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염소 나눔

6월 21일 알비노 6명과 고아 그리고 홀로 사는 3분에게 사랑의 염소 나누기를 했습니다. 고아 친구는 염소를 받은 다음 날 새끼를 낳아서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케냐 그레이스 인카운터 다녀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위해 잔지바 목회자 6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목사님들이 잔지바에서도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열리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집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신 LA은혜 한인교회 목사님과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키디치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감사

7월 12일 70명 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책가방과 선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닥이 맨땅이고, 비를 피하는 지붕만 있을 뿐입니다. 벽은 차광막으



로 돌렸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우추구니 마을 우물 성공 감사

7월 24일 3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숙원인 우물을 파 주었습니다. 후원은 익산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땅속 6메타 지점부터 무척 힘들었지만,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아주머니 한 사람이 물을 안 길으려 다녀도 된다고 정 선교사에게 자신에게 샤워 할 수 있도록 물을 뿜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옷이 물에 젖었지만 덩실 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무아카제교회 어린이 전도 집회 감사

7월 26일 12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책가방과 학용품과 과자를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무아카제 목사님은 주민들과 교제를 잘 하고 계셔서 종교가 다르지만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엠베 사우리 마을 우물 성공 감사

8월 4일 주민 천명이 마시는 우물 성공했습니다. 처음 우물 파주겠다고 방문 했더니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 주겠다고 왔다가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물 기계가 고장나서 다른 기계를 빌려서 뚫습니다. 물이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며 정선교사님은 아버지 같아요라는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개수식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코끼리 바나나, 파파야, 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돈곤케 마을 우물 성공 감사

8월 12일 돈곤케 마을은 언덕 높은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500명 이상됩니다.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이 좁아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자 주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와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물 파는데 땅속 구멍을 만나 물이 많이 들어가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 주었습니다. 물이 나오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물 길으

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목욕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개수식 때 주민들이 선물로 코코넛, 오렌지, 굴, 사탕수수를 주셨습니다.

무아카제교회 의자 선물 전달 감사

8월 13일 잔지바르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정 선교사와 한인들이 함께 플라스틱 의자 50개를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이 교회가 부흥되어 의자가 부족했는데 선물을 해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키보요요 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감사

8월 16일 7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책가방과 학용품과 과자를 나누었습니다.

은다가 마을 우물 성공 감사

8월 18일 천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꼭 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5메타 지점부터는 단단한 돌이 시작되어 무척 힘들었습니다. 60메타 지점에서는 로드가 우물 속으로 빠져 건져 올리느라 힘들었지만 70메타까지 파서 성공했습니다.

주기도문 세미나 감사

8월 25일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께서 목회자와 선생님 53명과 초,중등 학생 105명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레교회 어린이 주일 축하예배 감사

8월 30일 돌레 교회 주일 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한 말씀 암송대회와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된 예배는 오후 3시에 마쳤습니다. 2시간 서서 찬양 1시간 설교 후 다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자 해서 함께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책가방과 학용품과 과자를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돌레교회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국가 시험을 위하여 중보기도 요청

10월 12일부터 중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국가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위해 합숙하는 학생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험을 치를 소강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건축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어서 더디지만 열심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지 지역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2. 현재 진행 중인 중고등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남은 건축 과정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3. 격주로 아루샤 한글학교와 어린이 한국어 예배에 참여하는 이음이가 한국인 또래들과 함께 배우고 예배하며, 믿음과 정서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4.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이번 소우기(10~11월)에 저희 가정과 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배수시설이 잘 마련되어 침수 피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 10/26-10/30: 6학년, 9학년 시험과 31일 졸업식, 내년 고등학교 개교를 위해
3. 신학교 18, 19기 학생들이 잘 배워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4. 개척 건축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 오르도록
5.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미국 김OO 선교사

1. 성령 충만을 위하여
2. 말씀 충만을 위하여
3. 아랍어와 문화를 배우는 지혜
4. 형제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도록
5.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게 되도록
6. 지속적인 무슬림 선교 후원을 위하여



탄자니아 정부진 / 조재숙 선교사

1.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
2. 국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3. 성경통독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4. 중학교 건축의 필요한 재정이 모두 채워지도록
5. 유,초,중학교 졸업식을 위하여
6. 27년도 학생 모집을 위하여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피아노를 위한 공간 임대
2. 언어의 성장
3. 감옥사역
4. 발칸 4국 네트워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P국 정OO / 정OO 선교사

- 그동안 22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34개 학교, 교회, 비즈니스, 자비량 사역센터 중에서 특별히 미 전도종족사역 중심 센터를 감당하는 7개 지역 7명의 사역자들에게 최소한 월100\$의 사역비가 지원되어 그들이 더 활발하게 복음사역에 집중하게 하소서
- 정치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강권무슬림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해주시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 세워진 자체 신학교가 더 발전되고 강화되어 미 전도종족지역 사역자들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T국 이에레미야 / 권은혜 선교사

-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13명의 T국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 이스탄불 새로운 강력한 센터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잘 채워지도록
- 몽골에서 1,000명의 복음의 기마부대를 T국과 회교권에 보내도록
- 몽골인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개발되어 선교 자립을 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 성령충만과 영적 리더십, 믿음과 기쁨, 이동 간의 안전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도록
- 자녀들, 부모, 형제들, 특히 믿지 않는 처가가족이 예수를 만나 온 가족이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도록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 네팔 QT 세미나 및 헌당예배 (10/18-10/26)
SL: 신영자 목사
리더: 이미선 권사
- 베네수엘라 AFA #12 (10/19-10/27)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영숙 전도사
- 은혜동산 18기 (10/23-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윤만 장로
- 인도개척선교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탄자니아 잔지바르 선교사 세미나 (10/29-11/2)
S/L: 안영식 목사
리더: 백준승 장로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태국 라오스 TD 3기 (11/21-11/28)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S/L: 송종호 목사
렉터: 양한철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2027 선교대회

2027 04/19-04/23

GMI 아프리카 중동 유럽 권역 선교대회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O/T: 11/16(월), 7PM, 웨딩채플